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II (여호수아 6:1~27)

이종윤 원로목사

II. 하나님의 작전 제 2단계는 순종이다 (20절)

순종은 신앙의 본질이다.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11:20).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는가?
- 우리의 고상한 믿음을 보실 때인가?
- 우리의 은사가 바로 개발되고 활용될 때인가?
- 성도가 높은 덕성을 쌓을 때인가?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22)하셨다. 이것은 사무엘 사울에게 한 말이다.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삼상 15:23)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그러나 순종을 하되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은 아멜렉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짐승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짐승 중 몇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겠다고 감추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순종으로 간주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셨다. 완전한 복은 계속하는 복종이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하루 여섯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는 칠 일 동안에 백성들이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다.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일과에 대해 여호수아로부터 당일에 명령을 받았다. 여호수아의 명대로 성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진중으로 돌아왔다. 무슨 계속된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얻은 것도 없지만 잃은 것도 없는 무미전조한 행진만 반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었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일을 이루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7일째 되는 날 새벽엔 같은 방법으로 성을 돌되 그 날엔 일곱 번 돌라고 하셨다. 이것은 마치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을 고치러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요단 강물에 일곱 번 목욕하고 가라는 명령만 받은 것과 비슷하다. 요단 강물에 일곱 번 몸을 담그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이었다. 더욱이 세 번, 네 번, 여섯 번 몸을 담갔으나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종은 일곱 번을 담궈야 하니 한 번 더 담구라고 부탁했다. 나아만 장군은

끝까지 참고 순종했고 마침내 그 살이 깨끗해져 어린 아이 살같이 되었다(왕하5:14).

여호수아 군대들이 여리고 성을 7일간 돌았고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에 7번 몸을 담근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야 승리가 온다.

하나님의 이 작전 계획은 오늘도 적용된다. 실패하거나 속히 응답이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도록 하자.

III.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악마의 요새가 수없이 많이 있다. 그 원수는 내 속에도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원수는 네 집에 있다고 하셨다. 교회 어느 모퉁이에도 사단 마귀는 높은 성벽을 쌓고 자기 안전을 위해 문을 잠근 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경험 많은 마귀로 호위병을 삼고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하며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수세에만 몰릴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로 받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교활한 마귀와 접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식무기로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무기를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세상적 지략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며 잘못이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오늘이나 분명하다. 그 방법을 사용하며 사단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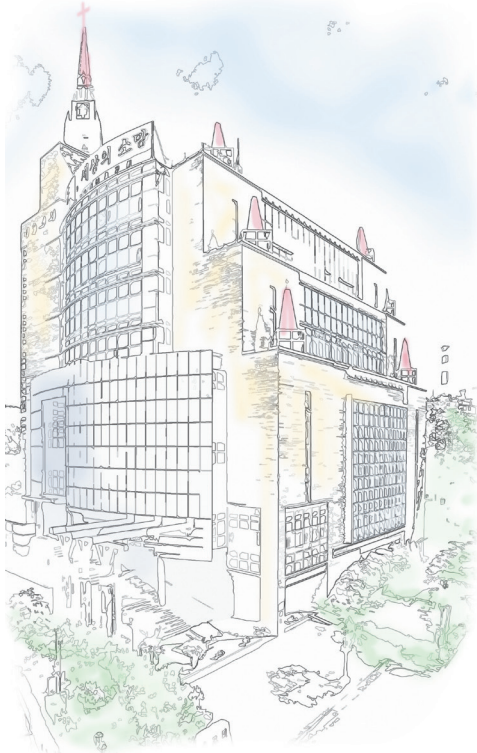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10:4 - 5).

기도와 순종과 말씀을 따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

결론

여리고 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세상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고 요새처럼 여기는 난공불락의 권세, 재력, 건강, 미모, 복한의 정권도 언젠가는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고 회개치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하는 이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이제 거짓과 불의의 캠프를 떠나 진리와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본안소송 1심 승소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다

지난 6월 14일(목),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하였다.

박노철 목사가 지난 2년여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면서 거부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과 재 시무 투표제도는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는 6년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0년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직후부터 줄곧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2015년까지 평온하게 시행되어 왔다.

박노철 목사도 그 규정을 잘 알고 2009년 부임

하였으며, 2011년 1월 담임목사가 된 이후 목회 5년간 위 안식년 규정에 따라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당회에서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주재하였다. 또한 성도들에게 위 안식년 규정은 성경의 명령이므로 순종하여야 하며, 서울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나아가 자신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공약한 것이 당회록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막상 자신의 안식년 시행이 다가오고 교인들의 여론이 자신에 대하여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되어 안식년 후 재신임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안식년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 1심에서 서울교회가 승소함으로써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거부는 불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본안소송 1심 판결주문 (2018. 6. 14 선고)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피고 박노철이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 서울교회는 피고 박노철을 같은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 박노철이 같은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 흥해작전 힘차게 행군 중



"교회 소생과 부흥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을 주제로 6월 6일(수)부터 시작한 2018년 흥해작전(참모장 : 오치열 장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은혜롭게 행군 중이다.

국가와 교회가 당면한 기도제목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제목을 새벽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내어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열기가 뜨겁다.

6월 16일(토)까지는 오전 5시 30분부터, 6월 18일(월)~ 25일(월)까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

하여 17일간 진행되는 이 특별새벽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라는 커다란 장애와 시련 앞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한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동참하여 흥해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이번 흥해작전에 참석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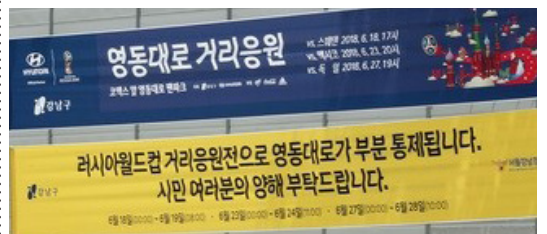
오명걸 최현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러시아 월드컵 거리 응원으로 교통 통제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 관계로 영동대로(삼성역 사거리->코엑스 사거리 방향)가 6월 18일(월) 0시~19일(화) 오전 8시, 27일(수) 0시~28일(목) 오전 10시까지 통제되므로 흥해작전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회하기 바랍니다.



유아부 교사모집

매주 10여명의 영아들이 출석하고 있으나, 유아부 교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새생명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주시길 교사님을 급구합니다.

- 영아부 교사를 원하시는 분은,
- 교육위원회 김혜연 집사 010-3923-9913
- 영아부 부장 이갑연 권사 010-4205-7848
- 로 연락바랍니다.

흥해작전 5행시 모집

흥해작전 본부는 2018 흥해작전 일환으로 흥해작전 4행시, 소생과 부흥 5행시, 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의 약자 S.C.R.A.R 5행시를 모집한다.

제출기한은 6월 24일(주일) 오전 12시까지이며 제출처는 흥해작전 특별행사 응모함에 넣어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윤명구 집사(010-5247-9036)

서울교회의 참된 회복을 촉구한다

교회명의 통장은 검찰에 오정수 장로가 먼저 스스로 제출한바 있고, 검찰에서도 자금 추적까지하며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 무혐의처분 함



경솔하게 이를 교회 돈이라고 속단한 후 그 돈을 오정수 장로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엄청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임

박노철 목사 측은 최근 또 다시 오정수 장로가 서울교회 명의 통장에 있던 교회 돈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교회 아가페타운 부지구입대금으로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아갔으며 이 통장에 남아 있던 나머지 돈까지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자기들의 소식지인 브니엘을 통하여 퍼뜨리고 이어서 곧바로 언제나 충성스럽게 박노철 목사 측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 인터넷 신문 목사를 통해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혹을 제기하는 박노철 목사 측에 이 통장에 있던 돈이 교회 돈이라고 단정하였다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많은 수 십억원대의 돈이 이 통장에 예금되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이라도 했는지를 묻고 싶고 그런 확인조차 없이 경솔하게 이를 교회 돈이라고 속단한 후 그 돈을 오정수 장로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엄청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임을 먼저 경고합니다.

오정수 장로는 1995년부터 대치동 새예배당 부지 매입자금으로 수 십억원을 교회에 빌려주거나 교회로부터 상환 받는 등 자금의 입출금이 잦은 관계로 세무관계 상 자금세탁 등의 오해를 받을 우려와 이종윤 목사가 새예배당 입당 이후의 새 비전으로 제시한 사랑의 집(후에 아가페타운으로 명명) 건립에 소요될 자금도 당시 교회나 성도들의 형편상 어차피 자신이 맡아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책임감에서 아예 그에 소요될 자금을 개인예금과 구별하고 또 앞서처럼 불필요한 세무상 오해가 없도록 교회명으로 된 통장에서 직접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새예배당 부지매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상환 받는 돈을 별도로 개설한 교회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 왔으며 따라서 이 통장에금은 명의만 교회일 뿐 실제로는 오정수 장로 개인재산이어서 계좌명의자 주소도 서울교회가 아닌 오정수 장로 개인 주소로 하고 통장과 도장도 모두 개인이 직접 소지, 관리하였습니다.

교회에 빌려주었다가 상환 받은 대여자금이 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당시 위 상환자금이 인출된 서울교회 정식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큰 어려움 없이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 교회로부터 상환 받은 돈이 모여 최종적으로 2008년 9월 현재 총67억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도 박노철 목사 측은 이전의 입출금내역은 모두 밝히지 않은 채 마지막 거래내역만 제시하며 마치 그 돈을 오정수 장로가 몰래 빼낸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이 서울교회 돈이었다면 교회 자금여력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교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이 통장에 있던 돈이 오정수 장로가 서울교회로부터 상환 받은 돈이 아니라면 서울교회는 오정수 장로로부터 빌린 수 십억원의 건축자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상환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정수 장로가 숨겨놓은 돈이었다면 추적이 어려운 제3자 명의로 은닉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버젓이 드러나게 교회명으로 해 돌리가 없고 실제 교회소유라면 교회재정이 없어 수 십억 채무가 있는 상황임을 교인들은 물론 현재 박노철 목사 측에 가 있는 재정위원도 다 알고 있을 상황에서 교회의 정상적인 재정 지출절차 없이 몰래 인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 교회는 지금은 물론 그 당년도 교인들의 현금수입 외에 다른 수입은 전혀 없었고 현금은 매 주일 계수부 담당자들에 의해 철저히 계수되고 계수위원들이 직접 서명한 집계표까지 작성되어 총액 그대로 거래은행에 곧바로 입금되고 있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단돈 1원이라도 다른 계수위원 몰래 빼돌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현재 박노철 목사 측에 있는 재정위원을 거친 장로와 계수위원 봉사경험이 있는 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건축 당시는 물론 교회입당 직후의 교인 수나 재정규모에 비추어 이처럼 수 십억원의 자금이 빼돌려질 상황이 아니었음은 당시 서울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는 교회 출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재정비리를 외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으로 박노철 목사측에 동조하는 이들은 사실을 몰라서 떠드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은 앞서 고소되었던 아가페타운 부지 고가매입의혹 사건에서 검찰에 오정수 장로가 먼저 스스로 제출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자금 추적까지하며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 그대로 무혐의처분 함으로써 사실상 이미 법적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이미 이 교회명의 통장 건에 대하여도 다시 고소하여 검찰에서 수사착수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최종 조사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신문은 두 번째 기사에서 첫 번째 기사로 인하여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사고소로 역일까봐 갑자기 교회예금이 아닌, 오정수 장로 개인재산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깔고 그래도 교회허락은 받았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등 향후를 대비하여 미리 출구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처럼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명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 67억원이 오정수 장로 개인 돈인지 교회 돈인지는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각기 추적해 보아도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새예배당 부지구입 당시인 1995년경부터 오정수 장로가 빌려준 돈을 상환한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만 추적해 보아도 금방 이 67억원의 출처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종윤 목사는 박노철 목사 측의 고소에 의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재산관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재산이라고는 책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자 담당수사관조차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고 국민연금까지 조기수령 하여 건축현금으로 모두 드렸던 그에게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의로 주택 한 채라도 마련해 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살 때까지만 거주할 집이면 충분하다며 고사한 분입니다.

오정수 장로는 IMF와 국제금융위기의 고금리 시대에 교회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자만을 지급했음에도 그마저 대부분 다시 교회에 현금하고 재정이 모자라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건축현장경비까지 건축위원장으로서 직접 총당하며 충성한 사람입니다.

총현교회에서 맨 손으로 나와 10년이 채 안되었을 때 대치동 부지를 구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까지 모든 성도들이 단 돈 10원을 아끼려고 별별 땀과 땀으로 봉사하며 세운 서울교회입니다. 제발 이종윤 목사나 오정수 장로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된 똑같은 사안만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비겁한 행태를 버리고 더욱이 지난 6월 14일 사회법원에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재신임투표제도를 인정하여 더 이상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한 이상 이에 깨끗이 승복하고 서울교회의 참된 회복을 위해 마지막 남은 결단의 길을 갈 것을 간곡히 촉구할 뿐입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2018 흥해작전 말씀 요약

교회 소생과 부흥 (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

6.11(월) 주님, 제가 하박국입니다 (합 1:1-2:1) / 장석남 목사

하박국의 기도는 절망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1. 절망의 시대에 부름 받은 자, 하박국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천 년 동안 명맥을 이어 가던 앗수르 제국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유다 또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희망의 불꽃이 꺼진 낙망과 절망의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 습니다.

2. 시대의 아픔을 겪는 자, 하박국

원수 앗수르가 무너지면 살만해 질 것이라고 고 대하던 유대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맹수보 다 더 잔혹한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타락 한 사회 현실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은 정의를 외치 는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지도층은 힘없는 백성의 고통을 뺏아먹고, 종교지도자들은 자리보존을 위한

뇌물을 마련하느라 재물에 눈멀어 말씀과 예배는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통 스런 현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늘 분단 조국의 아픈 현실을 꺼안고, 사탄의 꾀계와 거짓전술에 피 흘리는 교회를 꺼안고 하나 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께서 듣고 계십니다.

3.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박국

‘하박국’의 뜻은 꺼안다, 매달리다 입니다. 하박 국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질문하고, 항의하고, 탄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째서 무관심하게 가만히 계 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어째서 악인이 의인을 삼 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은 유다의 고난을 꺼안고 하나님께 매달 려 기도하다가 적절한 때에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야 낙망 의 골짜기를 빠져 나옵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높은 곳, 성루 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 성루 에 높이 올라 하나님을 고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교 회사랑의 일념으로 영혼의 높은 성루에 올라가 하 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박국입니다! 찢기고 피흘리는 서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 회 수호의 전선에 담대하게 서서 교회를 꺼안고 상 처받는 교인을 서로 꺼안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 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12(화) 여호와와 영광을 위하여 (합 2:1-20) / 장석남 목사

1. 성루에 오르라

파수하는 곳, 성루는 단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과 충성이 뜨겁게 타올라 영적으로 산 정상에 올라간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 은 곳에 세우시며”(시 18:33).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하여 열심 히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 그 곳이 바로 우리의 성 루입니다.

2. 믿음으로 살라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 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 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합 2:3)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너희에게는 더더보여도 그 리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과 거짓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을 가지 고 기다려라, 오직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거듭 말 씀하십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파수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5가지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①다른 나라를 노략한 것처럼 노략 질 당할 것이다(6-8절). ②남의 것을 약탈한 것으 로지는 높은 집이 파괴될 것이다(9-11절). ③ 남의 피를 흘리고, 불의로 성읍을 건설한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12-13절). ④다른 나라를 조롱하던 그 몇 배로 조롱을 당할 것이다(15-17절). ⑤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이 무력화 될 것이다(18-19절).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 신음하며 눈물 흘 리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

신의 교회가 사탄의 꾀계와 거짓 불화살에 공격당 하고 거룩한 예배당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부서지 고 점령당한 것을 부름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 면 타락한 유다 왕을 심판하셨듯이, 바벨론 제국을 단번에 날려 버리셨듯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 을 물으시고, 보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온 세상은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 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섰습니다. 파수 하는 것은 선지자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 모두 도 서울교회의 하박국이 되어 각각 맡은 곳에서 파 수하며 영적으로는 높은 성루에 올라 믿음을 굳건 하게 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켜내야 할 것입 니다.

6.13(수) 속히 흥해를 갈라주소서! (합 3:1-19) / 장석남 목사

1.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절망적 현실을 꺼안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달 라고, 피흘리는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음 성을 듣고, 힘을 내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 선 하박국 선지자!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 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2.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적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흥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며, 아얄론 골짜기에서 베푸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오시고 계시니 지금 고통스런 현실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

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 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 우 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 다시 흥해를 가르소서

하박국의 찬양은 두괄식입니다. 맥락상 맨 마지 막에 와야 할 간구가 맨 앞에 와있는 것은 강조용법 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을 의미 합 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 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 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 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3절). 하박국은 하나 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자기 시대에 다시 행하여 달라고 애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를 때는 낙심하고 두려

워 백성의 고통을 꺼안고 서럽게 울며 하나님께 매 달렸던 하박국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게 된 후에는 힘을 얻어 파수하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고 높은 성루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 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 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구속역 사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박국이 하나 님께 울려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올리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울교회 앞에 놓인 흥해를 속히 가르시 어 서울교회가 소생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속히 일 으켜 주소서!

6.14(목) : 여호와와 날 (슌 1:1-18) / 조원영 목사

스바냐서는 임박한 여호와와 날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날’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로서, 타락과 범죄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내시는 날을 말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일을 위하여 스바냐가 쓰임을 받을 때까지 숨겨두셨습니다.

요시아 왕 통치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선대왕들인 므낫세 왕, 아몬 왕의 영향을 받아 각종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악으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실제로 BC 7세기 초에서 중반까지는 구약 예언의 침묵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침묵은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와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가 선

포합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동시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와 날, 유다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는 중대한 선언을 선포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을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7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6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바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종교 다원주의, 맘몬주의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들을 존중하며, 하나님보다 인간이 가진 역사와 기술, 과학, 힘, 교육을 주목하는 시대

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의 양상을 띠고, 이단과 사 이비가 도처에 횡횡하며, 교회 안 밖으로 성도들은 엄청난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의 기초들이 보이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눅 2:25). 그는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시므온이 위로를 받을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시므온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호와와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15(금) : 여호와를 찾으라 (슌 2:1-15) / 조원영 목사

본문은 남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에 임할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은 남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1-3절)과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4-15절)의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회개 촉구의 권면은 멸망 받을 자들과 구원 받을 자들의 두 부류에게 주어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슌 2:3). 공의와 겸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견지하여 지속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스바냐는 남 유다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포악과 횡포 속에서도 감추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자 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감추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자신이 먼저 경험 하였던 것과 같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손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역시 이러한 감추어진 존재로 환난을 벗어나 보호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

난은 도래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세상은 더욱 잔인하게 변질되고, 회복 불가능해 보여서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듯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에 입각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말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성도로서 끝까지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영광스러운 결과를 거두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6.16(토) : 여호와와 날-구원 (슌 3:1-20) / 조원영 목사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웃 간에 서로 불신하며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스바냐는 3-4절에서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낱말이 고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였고, 재판장들은 포악하고 탐욕스럽게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경박하고 간사하여 신의가 없는 삶을 살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배역한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호소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

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슌 3:7)

6절에서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나라들이 진멸된 것은 그들의 죄악을 인한 결과임을 명심하고,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시고, 경고 하시며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때로는 위로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인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시며 협박과 사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법적인 시각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오직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7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배역한 백성을 위해서 열방을 심판의 도구를 세우셔서 진노를 쏟기 위해서 이들을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내시겠다고 남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8절).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이방 열국의 대 회심과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여호와와 날에 이방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선민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슌 3:17)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시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 홍해작전



김찬진 권사 (권사회장, 홍해작전 봉사참모)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홍해>앞에서 봉사할 자가 누구일까?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은 시퍼런 홍해 앞에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봉사는 섬김이다.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리라. 봉사 후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늘 들은 말씀이 생각난다. 그렇다! 여전히 잡고 가야 할 말씀이다

여전히 권사회에서는 홍해작전을 맞이하여 교회의 여러 곳을 살피며 봉사의 손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다.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급히 집을 나서면서 단단히 묶지 못하여 풀어져 땅에 떨어진 보따리 집어 묶어주고, 벽돌 만드느라 굳어진 손잡아 주고, 타들어 가는 목에 물 한잔 마시게 하며,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힘내자! 원망하지 말자! 기다리자!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바라보자는 말 밖에 없다.

지금은 2018 홍해작전 중이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을 승화시켜 드리는 간절한 찬양, 새벽마다 영혼 골수까지 쫓개는 생명의 말씀들로 넘친다. 이에 발맞춰 봉사분과에서도 다양한 메뉴로 힘을 돕고 있다. 부활의 상징 달걀을 나누며, 타는 목마름에 시원한 음료와, 영양가 높은 과일, 굳은 마음 살며시 열어주는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봉사, 교회 부흥의 불길기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봉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벽마다 봉사의 손길이 계속되어지는 서울교

회 권사회의 권사님들! 무엇을 잡으려 하지 않으며, 주신 은혜 감사하여 봉사하고, 받은 사랑 풍성하니 믿음의 계대에게 베풀어 주는 손길이 되어, 무너진 성벽 다시 세워지길 바라며, 동녘의 솟아오는 햇살을 바라보고 달려와, 눈가에 젖은 눈물 닦아주며, 눈물로 젖은 축축한 손길에 따뜻한 차 건네며 하는 말...

우리 힘냅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정

■ 이종원원로목사는 6월19일(화) Save.N.K.가 제작한 중국출생 탈북자의 생활에 대한 영화 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한다.

■ 금주의 식사: 새우볶음밥

김상식 집사 이순례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7일	주일	시 24-29		고전 12-16	
6월18일	월	시 30-34		고후 1-13	
6월19일	화	시 35-37		갈 1-6	
6월20일	수	시 38-41		엡 1-6	
6월21일	목	시 42-46		빌 1-4, 골 1-4	
6월22일	금	시 47-52		살전 1-5, 살후 1-3	
6월23일	토	시 53-58		딤후 1-6, 딤후 1-4	



■ 독창회 : 15교구 신모란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찬양대) 6월 22일(금) 오후 8시 금호아트홀



■ 졸업연주회 : 9교구 이주희 선생 (임마누엘 찬양대) 6월 15일(금) 오후 7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연주용홀



■ 출간 : 3교구 김명심 집사 『김명심 시집』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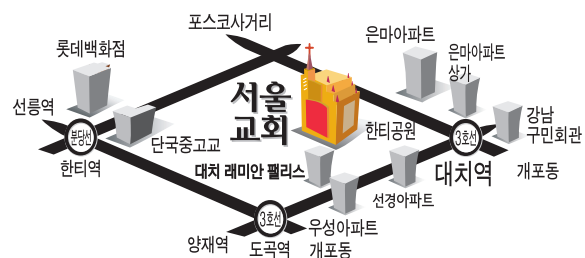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18일(월)~25일(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2018 홍해작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법과 정의를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3.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시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